

2020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윤리와 사상]

1	②	2	②	3	⑤	4	⑤	5	④
6	③	7	④	8	①	9	④	10	⑤
11	①	12	①	13	②	14	③	15	⑤
16	③	17	④	18	②	19	⑤	20	③

1. [출제의도] 석가모니의 사상 이해하기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세상의 실상을 모르는 무명(無明)과 이로 인한 애욕(愛欲) 때문에 집착이 생겨나고 그 고통을 겪는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涅槃)에 이르기 위해서는 연기(緣起)를 자각하고 지나친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의 치우침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였다.

2. [출제의도] 스피노자와 키르케고르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스피노자, 을은 키르케고르이다. 스피노자는 신을 만물의 초월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원인으로 인식하고, 자연의 인과적 질서를 이성적으로 관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키르케고르는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살기로 결단할 때,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출제의도] 맹자와 순자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불인인심(不忍人之心)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다. 반면 순자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본성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노력[偽]으로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맹자는 인간은 하늘이 부여한 도덕 규범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순자는 하늘의 일과 인간의 일을 엄격히 구분[天人分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출제의도]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자유 의지를 지니며, 악은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아퀴나스는 신의 계시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완전한 행복 실현을 위해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5. [출제의도] 왕수인과 주희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왕수인, 을은 주희이다.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치'라는 심즉리(心卽理)를 주장하였으며, 양지를 발휘하여 마음을 바로잡는[正] 것을 격물(格物)이라고 보았다. 반면 주희는 '성이 곧 이치'라는 성즉리(性卽理)를 주장하였으며,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탐구하여 천리(天理)에 도달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왕수인과 주희는 공통적으로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한다[存天理去人欲]고 주장하였다.

6.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이황, 을은 이이다. 이황은 사단(四端)은 이가 발하고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고, 칠정(七情)은 기가 발하고 이가 그것을 타는 것이라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이이는 기발만을 인정하여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氣發理乘一途說]이라고 보았다. 한편 이황과

이이는 공통적으로 사단과 칠정을 정(情)이라고 보았으며, 사단은 순선하고 칠정은 선악의 가능성이 혼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7.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경향성[嗜好]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정약용은 사덕(四德)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지속적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이황과 이이는 사덕을 마음속의 이치라고 보았으며, 사단은 사덕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서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정약용과 이황, 이이는 공통적으로 인간에게 사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8. [출제의도] 듀이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듀이의 주장이다. 듀이는 도덕이나 윤리도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므로 성장 그 자체만이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9. [출제의도] 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노자의 주장이다. 노자는 천지 만물의 근원인 도(道)에 따르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겸허(謙虛)의 자세로 다투지 않을 것과 작위가 없는 무위(無爲)의 덕인 상덕(上德)을 바탕으로 소박한 삶을 살 것을 주장하였다.

10. [출제의도] 홉스와 루소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홉스, 을은 루소이다. 홉스는 자기 보존 욕구가 국가 형성의 근원적 동기이며,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 계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강력한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루소는 주권이 양도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국가 권력은 시민들의 동의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홉스와 루소는 공통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자연권을 부여받는다라고 보았다.

11. [출제의도] 소크라테스와 에피쿠로스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소크라테스,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덕은 참된 앞에서, 악은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도덕 판단의 기준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에피쿠로스는 욕망을 절제하여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쾌락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 공적인 삶을 멀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소크라테스와 에피쿠로스는 공통적으로 행복한 삶과 유덕한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12. [출제의도] 위정척사 사상과 증산교 사상 비교하기

(가)는 위정척사 사상, (나)는 증산교 사상이다. 위정척사 사상은 유교의 이념을 수호하며 성리학적 신분 질서의 유지를 주장한다. 이에 비해 증산교 사상은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무속 신앙과 도가 사상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며, 현세에서 지상 낙원의 실현[後天開闢]을 강조한다. 따라서 위정척사 사상에 비해 증산교 사상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X축은 낮고, Y축과 Z축은 높다.

13. [출제의도] 공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공자의 주장이다. 공자는 통치자가 먼저 군자다운 인격을 닦은 후에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修己以安人]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자는 통치의 궁극적 목표는 엄격한 법치의 실현이 아니라,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교화하는 덕치(德治)의 실현에 있다고 보았다.

14. [출제의도]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 이해하기

그림의 선생님은 마르크스이다. 마르크스가 추구한 이상 사회인 공산 사회는 노동자 계급의 혁명을 통해 계급이 소멸되고 국가가 사라진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생산 수단이 공유되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진다.

15. [출제의도] 칸트와 벤담, 흄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칸트, 을은 벤담, 병은 흄이다. 칸트는 도덕 법칙은 선형적 법칙으로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이나 경험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벤담은 개개인의 이익의 총합을 넘어선 사회의 이익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흄은 도덕 행위를 유발하는 동기는 이성이나 감정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한편 벤담과 흄은 사회적 유용성을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6. [출제의도] 목자의 사상 이해하기

그림의 강연자는 목자이다. 목자는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兼愛] 서로 이로우며 나누어야[交利] 전쟁과 같은 불의(不義)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목자는 전쟁이 가져오는 불이익을 강조하며, 타국을 정복하거나 침략하기 위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전쟁은 나라의 생산력을 떨어뜨리고 백성들의 생명을 희생시키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자국에 손해를 준다고 보았다.

17. [출제의도] 하이에크와 케인스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하이에크, 을은 케인스이다. 하이에크는 정부 주도의 경제 계획이 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보고, 자유 경쟁 시장의 자생적 질서 보장을 주장하였다. 반면 케인스는 시장 실패로 초래된 불황과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18.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플라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산술적 중간이 아닌 모자람의 악덕과 지나침의 악덕, 즉 두 악덕 사이의 적절함이라고 하였으며, 실천적 지혜는 품성적 덕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정의를 영혼의 세 부분에 해당하는 덕인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된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 용기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19. [출제의도] 에픽테토스와 장자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토스, 을은 장자이다. 에픽테토스는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정념에 초연할 것과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고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장자는 자기중심적 편견을 극복하여 만물을 차별 없이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에픽테토스와 장자는 공통적으로 자연의 질서를 따름으로써 참된 자유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20. [출제의도]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베이컨, 을은 데카르트이다. 베이컨은 인간이 지닌 선입견과 편견을 타파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학문 탐구의 방법으로 객관적인 관찰과 실험을 강조하였다. 데카르트는 철학의 제1원리를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라고 주장하였으며, 학문 탐구의 방법으로 연역적 추론을 강조하였다. 한편 베이컨과 데카르트는 공통적으로 올바른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